

2026. 8. 31.(월)
Vol. 46

우리 팀 소개, ⑮ 기계정비팀

안전 동행 1,800여 일 여정의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다짐

기계정비팀장의 메시지

한 층 더 성숙된 안전문화로 나아가는 기계정비팀

기계정비팀은 그동안 전 팀원의 노력으로 안전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매일 안전점검을 실천하고 서로의 안전을 살피며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안타깝게도 약 1,800일 동안 이어온 무재해 기록이 안전사고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저희 팀은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아무리 오랜 기간 안전을 지켜왔다 하더라도 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보에서는 계획보수, 지구정비보수, 중앙정비 등 각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ISC가 함께 지향해야 할 안전문화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재해 기록은 다시 쌓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팀원이 하루의 업무를 안전하게 마치고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인터뷰 공통 질문 내용

- Q1 현재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 Q2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키고 있는 본인만의 안전 원칙이 있으신가요?
- Q3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계정비팀 각 현장에서 활약하고 계신 작업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왼쪽부터 진창대 계장, 안영준 사원, 이종우 계장, 조승환 사원, 정준영 사원, 채권형 사원

진창대 계장 (계획보수반)

A1 계획보수반에서 정해진 보수 일정에 따라 설비 분해, 부품 교체, 재조립 등 계획된 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우선으로 하면서 보수 품질과 정해진 시간 내 작업을 완수하는 것까지 함께 행하는 것이 저희 업무의 핵심입니다.

A2 계장으로서 함께 작업하는 반원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동료의 눈으로 잡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동료들과의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서로의 작업 상태와 주변 위험요인을 살피고 있습니다.

A3 저도 부족하지만, 빨리 끝내는 것보다 안전하게 끝내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습관이 우리 현장에 자연스럽게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 왼쪽부터 김용수 계장, 김수용 사원, 지향준 사원, 정진형 사원, 박재하 사원

지향준 사원 (120톤제강 기계보수반)

A1 120톤 기계보수반에서 설비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다른 팀에서 옮겨와 아직 배워가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씩 익히며 현장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A2 낮선 설비를 마주하면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반드시 확인하고 배운 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A3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배우며 일을 하다보니 조금씩 팀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서두르기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익히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정비인이 되고 싶습니다.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달현 계장, 유호권 주임, 김종국 사원, 호혁기 사원, 전동욱 사원, 김용정 사원, 이창길 사원, 박승현 사원

박승현 사원 (동력배관보수반)

A1 수처리 관련 설비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배관 보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꾸준히 공부하며 기능장을 취득했고, 지금도 배우는 자세로 현장에서 하나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A2 “판단이 서지 않으면 반드시 선배

님께 먼저 여쭙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을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안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들면 반드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A3 작은 노력이 쌓이면 결국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작업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기본을 지킨다면, 실력도 안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믿습니다.



▲ 왼쪽부터 김영빈 사원, 권오준 주임, 최광희 계장, 김용학 사원, 이재열 사원

최광희 계장 (중형압연 기계보수반)

A1 중형압연 기계보수반에서 설비 정비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습니다.

A2 안전은 한순간의 각오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작업 전 안전점검은 신입 때보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한 번 더 확인합니다.

A3 “다치지 않고 오래 일하는 것이 최고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료들이 안전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준영 사원, 김태훈 계장, 정종현 계장, 전성수 사원, 오현식 주임, 이성현 사원, 김광일 사원, 홍명기 사원, 김석우 사원

김광일 사원 (기중기보수반)

A1 기중기의 감속기, 차륜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작업이 많은 만큼, 작업할 때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A2 “확인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 저의 안전 원칙입니다. 과거 작업 중 사고로 한동안 현장을 떠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볼트 하나를 확인할 때도 매번 처음 점검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A3 “경력이 쌓일수록 오히려 기본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업에 익숙해질수록 생길 수 있는 방심을 항상 경계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끝까지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호 '휴식·쉼' 테마 추천도서 업무지원팀 신선화님의 추천도서 이야기



불편한 편의점

한국소설 | 김호연

도시의 작은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다중 시점을 통해 '휴식과 쉼'의 의미를 따뜻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편의점을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사는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이곳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삶을 나누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직장인, 노인, 학생 등 다양한 손님들이 각자의 고민을 안고 찾아오고, 오고 가는 짧은 대화와 만남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작은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은 치열한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주인공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태도는 손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마음의 집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임을 잔잔하게 전합니다.

Q. 도서 추천 이유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지원팀 신선화입니다. 이번 '휴식과 쉼'이라는 주제에 맞춰 지친 마음을 충전하고 내면의 휴식을 전달하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친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각 인물의 고민과 사연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됩니다.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편의점에서 펼쳐지는 소박한 희로애락과 이웃의 이야기는 마음을 포근하게 채워줍니다. 또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친절과 진심 어린 대화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책장을 덮고 난 뒤에도 따뜻한 여운이 오래 남아,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바쁜 현실 속에서 잠시 쉬어 가고 싶은 분들, 위로와 공감이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Q.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이 구절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다 보면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기 쉽지만, 진정 소중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쉬어 가는 시간은 단순히 업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안부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여유를 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쉼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Q.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다들 각자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버텨내느라 참 바쁘고 지치죠.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나 자신도, 곁에 있는 사람도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고요. 결국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말 한마디와 따뜻한 친절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잠시 멈춰 서서 애선 나를 다독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정한 안부를 건네며 서로에게 포근한 침표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신선화님처럼, 전자도서관에서 마음의 작은 위로를 느껴보세요! 전자도서관은 언제나 여러분의 독서를 응원합니다.

'가을·시작' 추천도서 코너 마음에 남는 한 권의 책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책 한 권과 함께 여유를 즐기길 좋은 시간입니다. 이번 추천도서 코너에서는 '가을·시작'을 주제로 여러분의 추천 도서를 기다립니다.

깊어지는 계절과 함께 읽기 좋은 책,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시집 등 올 가을 함께 읽고 싶은 책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권의 책이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추천도서 '테마'는? 가을·시작 참여 방법

전자도서관에서
'테마와 어울리는 책' 읽기

책 추천 이유와 감상평 작성하기
(*자유양식)

메일로 보내기
(hhk7631@hyundai-isc.com)

참여 기간 2026년 9월 9일(수) 까지

시상 심사 후 우수 추천작 선정

- ▶ 선정자 개별 안내 및 사보 공지
- ▶ 소정의 선물 증정 (EX. 텀블러)

철강산업,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 강화까지

최근의 철강산업이 처한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국내 수요 감소,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 확대, 탄소중립 전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수요, 건설경기 침체로 위축

국내 철강산업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내수 부진입니다. 특히 철강의 주요 수요처인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철강재 수요도 함께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국내 철강산업이 **건설수요 급감과 글로벌 과잉공급, 수출 둔화가 겹치면서 20년 만의 최저 수요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과 조정이 나타나는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철강시장도 공급과잉 지속

글로벌 시장 역시 공급과잉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글로벌 철강설비 증설과 중국의 수출 확대 등이 공급과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련 관세와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여건도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과 관련한 투자 부담도 철강업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복과 전환이 함께 필요한 시점

세계 철강수요가 완전히 위축된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026년 세계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의 수요 부진과 공급과잉이 이어지고 있어 **과거와 같은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에서는 단순히 수요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생산 효율 향상, 원가 경쟁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생산체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경쟁력은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철강산업은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환경일수록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품질과 생산성 향상,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경쟁력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철강은 우리 산업과 일상생활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반산업입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의 작은 개선과 노력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참고 : 산업연구원 「철강산업 위기 확산과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KDB미래전략연구소 「철강 산업 주요 이슈 및 국내 대응 방안」, 포스코경영연구원 「2026년 세계 철강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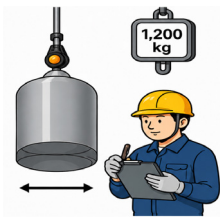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수칙

중량물 취급 작업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작업이지만,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작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익숙한 작업”이라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간과할 경우 순간의 부주의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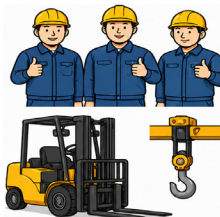
① 중량물 무게 및 크기 확인



② 작업 경로 및 환경 점검



③ 적정 인원 및 장비 선정



④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2 크레인 작업 시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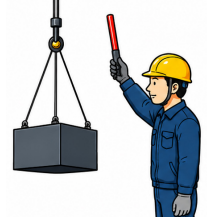
① 와이어로프 점검



② 후크 해지장치 점검



③ 신호수 지정 및 신호체계 준수



④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실시



⑤ 중량물 하부 출입 금지



⑥ 정격하중 초과 인양 금지



3 2인 이상 작업 시 준수사항

① 작업자간 상호 의사소통



② 예측 작업 금지



4 지그 사용 시 안전수칙

① 사용 전 변형 및 균열 여부 점검



② 용도에 맞는 지그 사용



③ 임의 개조 금지



크레인 작업 시 수신호 방법

① 중량물을 내릴 때



② 중량물을 올릴 때



③ 중량물을 뒤집을 때



④ 크레인을 멈출 때



⑤ 작업완료



⑥ 비상정지 [위험상황 발생]



신호수와 운전원은 항상 상호 시야 또는 통신수단을 확보합니다.



인양 전·중·후 작업상태를 수신호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닌 “확인 후 작업”이 안전의 기본입니다!

공식 수신호 사용

※ 과거 사용되던 손바닥 올리기/내리기, 주먹들기 등의 수신호 공식 폐지

안전마일리지,
이렇게 달라졌어요!

지난 8월 1일부터 안전마일리지 제도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적극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위해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진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주요변경내용

구분	항목명	내 용
변경	무사고	1. 단위 : 전사 → 개인 2. 포인트 : 50P/일 → 150P/일 3. 미지급조건 - 비휴업재해 : 10일(외부) → 30일(외부/부속의원) - 휴업 재해 : 30일 → 발생일 ~ 복귀 전일까지
	무재해	삭제 (2026. 7. 31 기준 무재해 달성률에 따른 포인트 소급 완료)
	안전교육, 비상훈련 위험성평가, 건강검진	항목별 포인트 지급 → 35,000P/반기 * 4개 법적사항 동시 달성 시 지급
	SCR 위반 발급자(기장)	삭제

세부항목

'26. 8. 1.부 적용

구분	단위	항목	달성요건	포인트(P)	반영주기	세부 지급 조건	
1	무재해 정착	개인	무사고	휴업+비휴업(외부)재해 미발생	150	일	※ 개인 유책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팀 판단 하 미지급 - 휴업 : 발생일 ~복귀 전일(요양기간+개인 휴직 포함) 미지급 - 비휴업(외부, 부속의원) : 30일 미지급
2		법/제도 이행	팀	안전교육	정기교육 이수 100%	35,000	반기
비상훈련	비상대응훈련 실시율 10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100%						
건강검진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100%						
3	위험요인 발굴	아차사고	아차사고 평가등급별	5,000~70,000	수시	• 기존 아차사고 / 안전신문고 포상 유지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평가 등급별	5,000~70,000	수시	• 기존 아차사고 / 안전신문고 포상 유지		
현장이행		작업표준-위험성평가 개정	10,000~100,000	분기	• 작업표준 / 위험성평가 개정의견 우수사례		
4	안전수칙 준수 및 작업절차 이행	개인	SCR 위반	SCR 위반시	-5,000~-10,000	수시	• 1차 : -5,000P, 2차 : -8,000P, 3차 : -10,000P * SCR 위반 휴업사고 발생시 3차에 준함
현장이행			안전작업절차 / 안전수칙 준수 우수	5,000	수시	• 기장·기장대행(기계정비팀) 권한 : 월 10장 현장순회점검 등록 시 우수사례 / 사진, 추천	
5	안전보건 문화정착	교육참여	안전보건교육태도 우수자	5,000	수시	• 교육시 10% 이내 대상 / 강사 권한	
안전보건교육태도 불량자			-3,000	수시	• 인원 제한 없음(3개월간 우수자 선정 불가) / 강사 권한		
안전문화		사보퀴즈 당첨자	5,000	월	• 사보퀴즈 응모자 중 20명 추천		
건강관리		건강증진 개선PGR 참여 / 개선우수	2,000 / 100,000	연	• 프로그램 참여 (2,000P) / 건강개선 (100,000P)		

* 출금신청 최소단위 : 5,000(P) 이상 / 신청단위 100(P), 익년도 이월 불가 (연말 잔여 포인트 일괄 지급)

* 출금신청 마감일 : 매월 25일 / 중도 퇴사자 퇴사 전 출금신청 **必** (미 신청 시 마일리지 소멸)

예시) 7/26 ~ 8/25 출금 신청 시 : 9월 급여일 계좌 지급, 8/26~9/25 출금 신청 시 : 10월 급여일 계좌 지급

+ Safety Quiz, 안전 지식 한입 +

Q.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적정공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② 일산화탄소 : 50ppm 미만
- ③ 황화수소 : 10ppm 미만
- ④ 탄산가스 : 1.5% 미만

응모방법 정답/소속부서/사번/직책/이름/연락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곳 bin9506@hyundai-isc.com (황원빈 매니저)

보내실곳 추첨을 통하여 총 20명 5,000포인트/인 마일리지 지급

응모기간 2026년 9월 9일(수) 까지

* 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5호 'Safety Quiz' 정답 : 위험성평가

당첨자 명단

No	팀명	이름	No	팀명	이름
1	제강팀	한상현	11	기계정비팀	정성관
2	대형압연팀	이인수	12	기계정비팀	이원두
3	대형압연팀	백현우	13	기계정비팀	이상훈
4	대형압연팀	윤숙진	14	기계정비팀	박광희
5	중형압연팀	이병욱	15	기계정비팀	김재진
6	중형압연팀	박현서	16	물류지원팀	유규상
7	중형압연팀	정노일	17	물류지원팀	이헌상
8	중형압연팀	송용현	18	물류지원팀	한동선
9	중형압연팀	장성우	19	물류지원팀	김현중
10	기계정비팀	오현식	20	물류지원팀	김경섭